

‘오거닉 코튼’ 시리즈 (2)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에 관한 Q & A

1. 오거닉 코튼을 최초로 시작한 것은 어느 나라인가?

Earth friendly 라고 하는 개념 하에 제조 공정을 중시한 제품을 만든 가장 최초는 놀랍게도 덴마크의 노보텍스라고 하는 섬유 회사이다. 1980년대 중반에 그린 코튼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시작하였다. 1987년에는 그린 코튼 계획에 의하여 덴마크 환경상을 수상하였다.

예로부터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거의 농업이 오거닉 농법이였다. 그러나 대전 후에 화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하여 농업 생산 증진을 위하여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게 되어 그것이 지구 환경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 가면 우리의 생활 환경은 점차 나쁘게 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양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유기 재배이다. 오거닉 코튼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은 1990년대 초이다. 그리고 오거닉 코튼 농법의 규준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 이러한 그린 코튼이 어떤 기준에 기초하고 있는가, 제조과정은, 농지는 등에 대하여 현재 조사 중이다. 또, 농지에 농약 사용의 변화에 대한 것 등도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

2. 오거닉 코튼 선진국은 어느 나라인가?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소비자 의식이 진전하고 있다는데 실태는 알 수 없다. 식용 작물의 유기 재배는 대단히 진전하고 있다. 텍사스 생산자 조합의 데이터에 의하면 오거닉 코튼의 생산량 중에 소비율은 미국과 유럽이 각각 40%이고 일본이 10%, 기타 10%라고 한다.

3. 오거닉 코튼의 재배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는?

터키, 미국, 페루, 인도 등 17 개국이다.

4. 면화 농부는 왜 재배를 결단하는 것일까?

첫째는 물론 환경에 대한 배려이다. 오거닉 코튼을 재배하는 것은 농가에게는 상당한 노력의 증가, 수확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유기 재배의 인증 확인 수고라는 번잡함 등의 부담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오거닉 코튼은 보통으로 재배된 면화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고 하는 이점도 있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가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유기 재배라고 인정되는 데는 3 년간 그러한 농지에서, 유기 재배를 계속되지 않으면 유기 재배 작물이라고 인증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기 재배를 하려고 결정하면 계속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들 조건을 클리어하게 하고 비로소 오거닉 코튼의 재배가 이루어진다.

5. 오거닉 코튼의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거닉 코튼 확인 방법은 나라마다 인증 단체 등에 따라서 다르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면화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나 스페인을 제외하고 면화 생산은 거의 없고 수입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가별로 생산 지도를 하고 있다.

인증 업무도 미국은 자국 내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유럽에서는 민간 인증 기관이 별도의 면화 생산국에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 년 10 월부터 입법하여 전국 통일 규정으로 관리되어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민간 인증 기관이 인증을 하고 있다(현재는 민간 인증 기관이 각각의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의 기준을 베이스로 하여 민간 인증 기관이 인증하고 있다.

6. 세계의 인증 기관은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농지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인증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깊이 있게 검사를 한다. 신청 서류의 확인, 토양, 종자, 잎, 과실, 섬유 등의 화학 분석, 상황 확인 청취, 작물 출하 시점에서 확인 청취 등도 엄격하게 행해진다.

유럽의 검사 기관 예를 들면, SKAL(네덜란드)이나 KRAV(스웨덴)에서 면화 생산을 인증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 ① 본부에서 스탭이 출장 인증 작업을 한다
 - ② 지소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스탭을 파견하여 인증 작업을 한다
- 인증 기준은 미국과 약간 다른 점도 있으나 검사 방법은 거의 같다.

7. 현재 JOCA(일본 오거닉 코튼 협회)에서 다루는 오거닉 코튼은 어느 나라의 것인가?

현재는 인증 수속을 확실히 하고 있는 미국 1 개국이다.

중국에서 재배된 오거닉 코튼을 독일 BCS 라고 하는 기관이 인증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흥미 있는 회사는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에는 유기 재배 인증 기관은 KRAV 의 관계로 8 개 있다. 그 중에 하나인 BCS Oeko Grantie 라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KRAV 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아직 충분한 평가를 얻지 못하고 인정의 결정은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단, KRAV 자체가 IFOAM 의 인가 기관이지만, 오거닉 코튼에 대하여는 IFOAM 의 기준이 2002 년 개정으로 정식 발효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까지나 KRAV 독자로 추진한다고 하는 단계이다.

오거닉 코튼의 인증은 이제 세계 규모로 퍼져 가고 있는데 아직 발전 도상 중이다. 우리도 이러한 정세에 맞추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거닉 코튼 제품을 금후 일본에서 좀더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별 인증 활동을 하고 있는 EU 의 인증 기관을 선정하여 협력 관계를 만들어 정보 교환을 긴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왜 미국에 한정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는 자국 내에서만 확인으로 면화의 인증에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장래는 유럽 지역 인증 기관의 인증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오거닉 코튼을 재배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오거닉 코튼도 아직 공업 생산의 원료이기 때문에 품질의 양호함과 균일성, 안정 공급이 중요하다. 약품이나 화학 비료에 의하지 않고 그러한 요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생산 위험을 포함하여 비용이 보통 면화의 재배보다 높게 되는 것도 마이너스 요소이다. 다만 지금 세계의 면 생산은 중국, 미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면 생산 대국에 무게가 실려 있고 그러한 나라에서는 화학 비료나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작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 약품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손에 의하여 커버하여 재배하고 있는 곳도 상당하다.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데는 사람의 손을 빌리기 쉬운 개발 도상국의 면화 생산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0. 오거닉 코튼으로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면 제품이 모두 오거닉 코튼으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0.1%라고 하는 생산량이다. 통상의 재배 방법에 의하여 바뀌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유기 재배에 관심을 높이면 일반 농업에서도 환경에 우수한 농약을 개발하여 농약을 줄이게 된다고 생각한다.

11. 오거닉 코튼과 보통 코튼의 구별은?

구별할 수 없다. 단, 오거닉 코튼인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서 화학 약품을 그다지 사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면 섬유 그대로의 태가 나온다. 보통의 코튼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오거닉 코튼으로 봉제하여 팔아도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오거닉 코튼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12. 발의 구별은?

파종으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반년 전후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수고와 비용은 대단한 것이다. 따라서, 인증에 있어서는 인증 기관의 입회 검사, 설명 청취, 토양, 과실, 잎, 섬유 등의 화학 분

석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제초제나 낙엽제를 늘리면 일목 요연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알기 쉽다.

13. 오거닉으로 재배하기 쉬운 기후는?

기후와 오거닉 코튼의 재배와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역시 최적인 일조 시간과 기온이다. 단, 원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조 시간 기온도 보통 코튼의 재배와 오거닉 코튼의 재배가 다른지 어떤지는 의문이다. 면의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의 대부분은 살충, 살균, 그것과 다른 작물과의 차이는 낙엽제의 사용이다.

다르다고 하면 기계화가 된 나라(미국, 호주 등)와 기계화가 지연되어 손으로 하고 있는 나라(저임금)의 둘로 나눈다.

살충제를 광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해충의 천적도 죽여 버리기 때문에 살충제를 계속하여 살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기계화가 지연되고 있는 쪽이 해충을 천적이나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기 쉬운 것이다. 또 손으로 하게 되면 낙엽제는 필요하지 않다.

기계 수확하는 미국에서도 텍사스는 겨울이 빨리 와서 춥고 서리가 빨리 내리기 때문에 면화의 잎이 말라 버린다. 이것은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생기지 않는 일이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유기 재배로 인정되고 있는 자연의 물질을 사용하여 낙엽을 촉진하고 있다.

14. 오거닉 코튼 제품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면 제품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 알 것이다. 오거닉 코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면 제품은 어느 정도의 종류가 있는냐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곤란하고 마찬가지로 숫자로 답하는 것은 어렵다. 그 중에서도 오거닉 코튼의 특징을 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월, 손수건, 내의, 아동 의류, 잠옷, 침구 등 피부에 닿는 것이나 손으로 만지는 것 등 많은 용도에 쓰인다.

15.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은?

판매량이 많은 것은 타월이다. 손수건도 수량만으로 말한다면 많다고 생각한다.

피부에 닿는 것이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내의와 파자마이다. 일본의 경우에 NOC에서 내놓고 있는 파자마는 카탈로그 하우스에서 판매한 것이 2,000매 정도 팔린 듯 하다. 또, 통신 판매용으로 여성용 블라우스가 3,000매를 넘는듯하다.

16.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느 정도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1 에이커의 면화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면화는 약 1.5 2 베일(1 베일 약 226kg)이다.

1.5 베일(339kg)의 면에서 낙물 등을 제거하고 만들 수 있는 실은 약 305kg 이고. 이러한 실 305kg으로 만드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손수건은 약 15,250매가 된다. 결국, 1 에이커(약 1,200 평 또는 4,000 m²)의 토지에서 15,000매의 손수건이 만들어진다.

면 섬유로 만들어진 사랑은 만드는 실의 변수에 따라 다르고 코머인지 카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대체로 면 총량의 90% 75%의 실이 만들어진다.📖

<출처 : 日本綿業振興會>